FX Market Daily

2026-10-01

전일동향

낙폭 축소하며...1,356.70원에 마감

30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56.70(15:30 기준)에서 6.10원 하락한 1,350.6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
환율은 서울장에서 양방향 수급 속 1,350원대 등락했으나 간밤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성장세 부각되며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려 1,356.7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9.4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62.26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50.60	1359.40	1350.00	1356.70	1355.70
엔화	859.25	867.71	854.78	862.26	-
유로화	1533.16	1541.49	1525.19	1536.21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85	-2.72	-6.56	-14.95
결제환율(수입)	-0.14	-1.4	-4.4	-11.54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달러 강세에...1,35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7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52.80, 15:30 기준) 대비 3.95원 상승한 1,356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견조한 미 성장세 등 강달러 지지 요인에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. 간밤 미국 8월 PCE가 전년동월대비 3.4% 상승하며 시장예상치(3.7%)를 큰폭으로 하회했고, 근원 PCE 역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준의 연속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다. 그러나 미 2분기 GDP 확정치가 2.2%로 수정치(1.5%)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소비지출이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미 장기금리가 상승했고, 이에 따른 강달러 지지력은 금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.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점도 위험선호심리를 둔화시켜 원화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
다만, 일본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과 엔화 동조화, 수출업체 이월 네고 물량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50.50 ~ 1361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0645.56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95원↑
	■ 美 다우지수 : 50906.05, -443.87p(-0.8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91.5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8267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